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48

2025 여름

중고기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잉어과, 고유종

크기 몸 길이는 약 10~16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녹갈색이고, 배쪽은 연한 은백색이다. 어린 개체는 몸 옆면 중앙에 검은 갈색의 세로줄무늬가 뚜렷하나 성어는 불분명하다. 몸통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산재한다.

주요 형질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지만 원통형이다. 주둥이는 짧고 둥글며, 입은 작고 주둥이 아래에 있다. 입수염은 1쌍으로 아주 미세하여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서식지 진흙이 섞인 모랫바닥과 자갈이 깔려 있는 유속이 완만한 하천 중·하류와 저수지, 수초가 있는 곳에 산다.

먹이습성 수서곤충의 애벌레, 갑각류, 실지렁이를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4~6월로 암컷은 긴 산란관을 내어 대칭이, 펄조개, 재첩과의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다. 소리와 기척에 매우 민감하다.

CONTENTS

대청호 소식
2025 여름 vol.148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김미희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장

09 **실개천과 금강 14**
효평천, 대청호에 꿈을 싣고

15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22**
대청호, 생명의 호수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20 **정책&이슈**
금강을 위한 365일 : 세종보 농성과 재자연화의 기록

24 **이사회 활동보고**
새로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025년 1차 이사회

25 **정책연구위원회 활동보고**
대청호포럼, 본격 준비 시작!

26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활동보고**
건강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 금강하천감시단 제1차 운영회의

27 **대청호해설사 선진지 견학**
지역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28 **네트워크 사업보고**

36 **대청호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8

발행일 2025. 6. 15.
발행인 고창섭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어느덧 벌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여름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덥고 바쁜 여름이지만, 대청호의 자연은 쉼 없이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그 곁을 묵묵히 함께 걸어온 여러분과의 시간이 어느덧 한 권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여름호에는 그 시간 속 따뜻한 순간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계곡 끝에서 흐름을 지켜온 사람

김미희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장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동네트워크의 김미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며 환경운동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6월 중순 영동 물한리 태연당이라는 본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김미희 사무국장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바위 아래 물살을 기억하며

계곡은 기억을 품는다.

한여름, 맨발을 담그면 짜릿하게 올라오던 물살의 감촉. 손바닥으로 떠 마신 시원한 계곡물. 바위 위에 앉아 한참을 웃다 발을 담그면 아지랑이처럼 퍼져나가던 온기까지. 김미희 사무국장에게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계곡은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다.

"예전엔 다슬기 잡으러 오면 노란 주전자 하나만큼만 딱 잡고 돌아갔어요. 욕심도 없고, 그게 일상이었죠."

그녀는 고향과 같은 이 계곡을 말할 때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내가 놀던 곳', '우리가 살던 마을', '아이들이 자라야 할 물길'. 그 모든 단어들은 자연스레 하나로 이어졌고, 김미희 씨는 그렇게 '이 물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12년, 대전에서의 삶을 접고 물한리로 돌아왔다. 산세 깊은 이 마을에 집을 짓고, 민박을 열고, 그리고 곧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회비만 내던 회원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변해가는 계곡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흐름이 멈추는 자리에서

여름이 되면 무안리 계곡은 잠시 '관광지'가 된다. 평상 위 삼겹살 굽는 연기, 족욕을 겸한 술잔, 흘러가는 플라스틱. 계곡물은 어느샌가 더 이상 맑지 않았고, 그 속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발진으로 병원을 찾았다.

"계곡에 평상 놓고 고기 굽고, 씻고, 기름이 떠다니는 웅덩이에서 수영을 해요. 그 물이, 결국 대청호로 흘러가죠."

김미희 사무국장은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섰다. 때론 관청에 민원을 넣고, 때론

새벽녘 포크레인 소리에 일어나 현장을 기록했다. 그녀의 작은 휴대폰에는 불법 작업 흔적을 찍은 사진이 가득했디.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은 늘 따로 있었다. “환경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더 많은 훼손을 정당화하고, 손쉽게 물길을 바꾸는 이들의 뒤편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죠.”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나서는 이는 많지 않다. 김미희 사무국장은 환경운동이란 거창한 구호 대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직접 흙공을 만들었다. 계곡이 심하게 오염된 해, 손수 만든 흙공을 던졌다. 유효 미생물이 하천을 정화하는, 손바닥만 한 진흙덩이였다. 몇 달 후, 흐릿했던 물이 맑아졌다.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죠.”

그 변화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김미희 사무국장은 회원마을과 함께하는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흙공을 만들고,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했다. 점점 맑아지는 도랑의 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될까?’ 싶었던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싶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김미희 사무국장은 마을과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서 상촌면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연중 행사로 도랑 청소를 추진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녀에게 또 다른 보람이 되었다.

“도랑 청소를 하면서 함께한 분들도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시 배우게 됐어요.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일이라는 걸.”

그 과정에서 김미희 사무국장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모두를 바꾸긴 어렵겠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환경이 중요하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 아닌가요?”라고 말하였다.

김미희 사무국장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했다. 생수를 사 오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배려였다. 또 손님들에게 일회용 그릇이나 식기를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늘 당부했다.

“말은 매번 드리지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말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미희 사무국장은 작은 이벤트라도 기획해볼 생각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손님에게 작은 선물이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변화의 문을 열고 싶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다.

“어떤 손님은 라면을 10봉지씩 끓이셨어요. 냄비째 삶아서 한 젓가락도 안 드시고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먹을 만큼만 준비해달라는 부탁도 해봤지만, 여행지에서의 들뜬 분위기가 그런 배려까지 담아내지는 못한 듯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고, 물기를 빼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고, 마을에 음식물 건조기나 미생물 처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한 마을에 하나라도 설치되면,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녀는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단지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예의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책임이다.

변화를 위한 꿈

김미희 사무국장은 오늘도 해 질 무렵이면 계곡으로 향한다. 낮에 다녀간 이들이 무심히 남기고 간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고, 물가에 놓인 돌 하나도 조심스레 바라본다. 그녀의 시선은 늘 흐르는 물보다 더 느리게, 더 오래 머문다.

언뜻 보기엔 그저 조용한 시골의 하루 같지만, 그녀에게 이 계곡은 삶이자 사명이었다.

"물한계곡이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죠. 하지만 예전 같은 느낌, '아, 시원하다, 정말 좋다'는 말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녀는 맑은 물에 발 담그고 다슬기 몇 마리 잡아와 국을 끓여 먹던 소박한 일상을 회복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게 단순한 회상이 아닌, 충분히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라는 믿음이 깃든 말이었다.

김미희 사무국장은 언젠가 마을 전체가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관광객도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고, 어르신들은 청소나 안내 같은 일자리로 소득을 얻는 마을.

"여기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아야죠.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보존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마을을 향한 고민은 요즘 들어 더욱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관과 민이 협력해 만들어낸 사례들을 살피고,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생태관광 모델도 눈여겨본다. 그렇게 물한계곡이 '환경과 공존하는 마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젊은 세대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사실 제 또래보다 더 어린 활동가는 거의 없어요. 들어와도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이 일은, 결국 '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납득해야 계속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직접 아이들에게 환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까운 학교에 나가 환경교육 봉사를 하고, 민박에 놀러온 아이들과도 계곡을 함께 걷는다. 한 사람이라도 환경을 돌아보는 눈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녀가 특히 애정을 갖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다.

"한마디로 즐거웠어요. 상촌면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했을 땐, 공연 중에 태풍급 바람이 갑자기 불어 모두가 우비 쓰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종종 "다시 한번 하자"는 이야기를 꺼낸다. 마을 어르신들에겐 좋은 기억으로 남은 소중한 행사였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마을에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또 대부분 일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요."

그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로 확장되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그 관심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마을도, 계곡도, 대청호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흐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우리 젊은층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진짜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미희 사무국장은 오늘도 한 사람 몫의 노력을 다한다. 물한계곡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물길이 대청호로 흘러들어가, 모두에게 깨끗한 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며.

효평천, 대청호에 꿈을 싣고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대전의 판암역에서 60번 버스를 타고 찬샘마을로 가다보면 도로의 왼쪽에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남해의 다도해처럼 육지의 바다인 대청호가 한눈에 펼쳐진다. 차는 굽이굽이 돌아 추동 취수장쯤 오면 선명한 다도해의 풍광이 나온다. 봄에는 연두색의 융단이, 여름에는 녹음이, 가을에는 갈대가, 겨울에는 자욱한 안개가 나를 맞이해 준다. 이 길을 20년도 더 다녔었다. 다도해를 지나면서 굽이굽이 돌아 고개를 오르면 효평고개란 팻말이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내려가 버스는 소리 없이 잘도 내려간다. 고개의 중간쯤 내려오면 왼쪽 산꼭대기에 산성이 보인다. 계족산성이다. 계족산성은 「삼국시대 테뫼식 석축 산성으로 백제가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서 신라가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논란이 있다. 성 중심에서는 삼국시대의 큰 우물터도 발견되었다. 성내 건물터를 조사한 결과 고려, 조선 시대의 자기편도 발견되었다. 조선 시대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는 신라와 백제가 쟁탈전을 벌인 곳으로 생각된다.」

계족산성입니다

효평천입니다

효평천의 돌보입니다

(대청호소식지, 2025, 봄)

산성에서 떨어진 빗물이 대청호 방향으로 내려오면 효평천을 지나서 대청호로 유입된다. 계족산성에서 효평동 방향으로 내려오면 첫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천개동'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덕분에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고산지대라 논보다는 밭이 많다. 계족산성에서 출발하여 이곳을 지나는 물줄기는 조금 더 굵어졌다. 계곡물은 여기서부터 인간의 간섭을 받고 있다. 집과 밭과 생활에 이용된 폐기물과 오염물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계곡물은 자체 정화능력이 뛰어나다. 하천에는 고마리, 큰갈퀴풀, 갈대, 미나리 등이 있어 하천물을 정화하고 있다. 5월이 되니 어디서 숨어 있

하천 주변의 논입니다

다가 나왔는지 이름 모를 꽃과 식물들이 하천을 뒤덮고 있다.

하천에는 모래와 돌 자갈들이 있어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 아쉬운 것은 하천의 제방이 모두 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흙으로 바뀌면 더 물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천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니 하천을 막은 시멘트 보가 나온다.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농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논농사에서는 물이 필수조건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하천에 보를 막고 물을 가두어 농사에 적절히 이용했다. 그런데 옛날과 달라진 것은 돌보와 시멘트 보의 차이다. 돌보는 물이 적당히 고이고 적당히 내려가니 물이 썩을 리 없고 자정작용이 활발하다. 그러나 시멘트 보는 물은 많이 저장할 수 있지만 물이 썩을 수 있다. 또한, 시멘트 보는 하류와 상류의 생태계를 단절시켜 버린다. 이런 곳에서 물의 흐름이 적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어도 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니 큰 논들이 나타나 어수선했던 마음에 평화가 온다. 마침 모내기 철이라 논에 물을 대고 쓰레질을 하고 있었다. 물이 가득 담긴 논을 보니 마치 거울처럼 아름다웠다. 먼 산의 신록이 논에 비치니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논에 물을 대면 어디서 왔는지 주변에 살고 있는 곤충, 개구리, 땅강아지들이 논으로 돌아온다. 몸 전체가 흰색인 중대백로와 갈색인 왜가리도 보인다. 논 습지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물이다. 벼가 자라는 논 가운데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문뜩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벼-메뚜기-개구리-뱀-매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떠오른다. 먹이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논의 벼는 탄소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쌀을 만들어

하천 주변의 느티나무입니다

제초제를 뿌려 죽은 식물입니다

주니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논 습지다. 이런 논들이 자꾸 없어져서 문제다

한참을 내려가니 하천 옆에 큰 느티나무가 보였다. 효평천 옆에는 큰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 있다. 느티나무는 잎의 양이 많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 우리나라 어딜 가나 마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잎의 양이 많고 넓어 광합성량이 많아 탄소의 흡수력도 높다. 이곳은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쉼터와 놀이터가 되어준다. 하류로 내려가니 논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논두렁을 보니 모두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제초제

메타세콰이어 군락입니다

버드나무 군락 입니다

를 뿌린 것이다. 제초제는 논두렁의 풀도 죽이지만 땅속에 살고 있는 곤충, 미생물, 균류들도 죽여 땅을 오염시킨 모양이다. 계속 쌓이게 되면 더 오염이 심해지고 물도 오염될 것이다.

물은 흘러 흘러 대청호와 맞닿는 곳에 왔다. 이곳 흙은 모래와 갯벌 흙으로 되어 있다. 이곳의 넓은 지역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어 적절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잘 자라고 있다. 메타세콰이어가 잘 자라 숲이 되면 좋겠다. 더 하류로 내려가니 버드나무 군락이 나타났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다. 물에 사니 수질도 정화하고 나무도 좋으니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버드나무

효평천과 대청호의 합류점입니다

나룻배 한 척이 있습니다

들은 항상 호수와 실개천이 만나는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습지의 진정한 친구다.

계족산성에서 출발한 물길은 이곳에서 대청호와 만난다. 이곳은 요즘 데크를 설치하여 대청호와 효평천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 두었다. 멀리 대청호 물이 보안다. 요즘은 비도 안 오고, 농사철이라 대청호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멀리 산 아래를 보니 옛날에 타던 나룻배 한 척이 보인다. 과거에는 고기도 잡고 사람도 싣고 다녔을 배일 것이다. 주인 잃은 나룻배가 밧줄에 묶여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효평천은 이곳에서 대청호와 만나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중이다.

대청호, 생명의 호수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글_**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대청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민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하였다. 사람마다 가지는 생각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대청호는 무엇이고 어떤 생각으로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1. 대청호, 생명과 쉼이 공존하는 곳

대청호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로, 1980년 완공 이후 수도권과 중부권의 주요 상수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금강 유역에 새롭게 조성된 대청호는 수질 관리

로하스길 물속에서 죽어가는 버드나무

로하스길 부서진 데크길

가 철저히 이루어지며 '맑은 물의 대청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최근 대청호는 단순한 상수원 역할을 넘어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자전거 동호인, 낚시꾼, 사진작가 등으로 붐비며 자연 속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대청호 주변의 산책로, 대청호오백리길, 전망대, 자전거 도로는 사계절 모두 다른 풍경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호수에도 조용히 스며드는 위협이 있다. 대청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그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2. 대청호의 환경문제 : 조용한 위협들

①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대청호의 가장 큰 위협은 여름철 집중되는 녹조 현상이다. 고온과 강우 후의 비점오염원 유입, 인근 농지에서 유입되는 비료 성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녹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조류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질이 악화되면 생태계도 타격을 받으며 물고기 폐사, 조류 개체 수 변화 등이 이어질 것이다.

② 생활 쓰레기와 관광객 증가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남기고 가는 쓰레기도 문제다. 특히 도시락, 음료수, 일회용 용기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길가와 호수 가장자리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수면 위를 떠다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수질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③ 불법 낚시 및 생태계 교란

대청호 일대에는 낚시 금지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가 성행한다.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미끼, 남은 낚싯줄 등은 물고기와 조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래어종의 유입

로하스길 정자에 버려진 커피잔

은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한다.

④ 개발 압력과 녹지 파괴

최근 몇 년 사이 대청호 주변에는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카페, 숙박시설, 레저 시설 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대청호의 원시성과 생태적 가치를 위협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는 습지와 숲이 파괴되면 호수의 자연 정화 능력도 떨어진다.

3. 우리가 대청호를 사랑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대청호를 그토록 즐겨 찾을까?

① 일상의 쉼표를 주는 자연

대청호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심에서 차로 30분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수면, 물안개 낀 새벽의 호수 풍경, 노을빛으로 물드는 저녁 산책길은 많은 이들에게 '멍 때리기 좋은 곳', '생각 정리되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② 교육적, 생태적 가치

대청호 주변에는 조류 관찰지, 곤충 서식지, 생태체험장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자연 학습의 장이 된다. 특히 대청호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수달, 다양한 멸종위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손꼽힌다. 이는 단순한 경관을 넘어선 '보존 가치'를 부여해준다.

③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자전거 도로와 오백리길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코스다. 특히 오백리길은 4계절 모두 색다른 풍경을 제공하며, 길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활동이 된다.

4.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

대청호를 지금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중요하다.

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내 쓰레기 내가 가

문의 문화재마을 주차장에 버려진 쓰레기

져가기'다. 한 사람이 버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십 년간 호수에 남아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야외에서 도시락이나 커피를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간편한 음식이라도 쓰레기를 챙겨가는 습관을 들이자.

②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

자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대청호를 찾는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대청호 순환버스나 자전거 대여소 등 친환경 인프라가 확대되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중교통 운행이 원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③ 생태 보호 구역 존중하기

탐방 시에는 보호지역이나 출입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길에서 벗어나 식물이나 곤충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차를 몰고 수변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본적이 있다. 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다.

④ 교육과 참여로 확산시키기

자녀들과 함께 대청호를 방문해 환경교육을 하거나, 지역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아가 친구나 이웃에게 대청호의 환경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5. 결론 : 대청호는 우리의 거울이다

대청호는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곳이 맑고 푸를수록 우리 삶도 건강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 반대로 대청호가 오염되고 병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경치'를 즐기기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대청호는 앞으로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생명의 호수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로하스길 부서진 데크길

지명산 정자 아래 버려진 운동기구

금강을 위한 365일 : 세종보 농성과 재자연화의 기록

글_**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월요일 당번', 세종보 천막 농성장 야간 당번이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다. 퇴근이 임박하면 마음이 바빠진다. 6시30분까지 세종보로 자리를 옮겨, 낮동안 천막을 지킨 활동가와 교대를 하고 농성장을 지킨다. 밤 10시 조금 넘자 금강스포츠공원 야구장 조명탑 불빛이 사라진다. 11시 한두리교 경관조명도 꺼진다. 농성장 주변은 물소리, 꼬마물떼새 울음소리, 자동차 소리, 이따금 밤산책을 나왔는지, 아이들 두런거리는 소리가 다리를 지난다. 12시에서 1시 사이 잠을 청한다. 오늘은 침낭을 덮지않아도 잘만하다. 지난 겨울 매서운 눈보라가 천막을 뒤흔들때와는 딴 세상이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새들이 등이 불편한 잠을 깨운다.

작년 가을,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탐방활동 과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학생들이 방문하였다. 세종보와 합강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전운동사례를 포함해서 41개의 인터뷰 질문을 A4용지 2장에 가득 담아 왔다. 4대강사업과 농업용수 문제뿐 만아니라 세종보 상시 개방 전후 생태계 변화상부터, 어도, 녹조, 준설토, 모니터링 결과등 궁금한 것이 많았단다. 두 번 걸음하기보다 한몫에 알아가보자고 했다고한다. 4대강사업 시작부터 준공후 문제점, 보개방, 지하수, 협의체, 보처리 결정, 천막농성장을 차리기까지 주마등처럼 질문과 이야기들이 오갔다.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제법 준비를 해온 티가 보였다. 3시간 가까이 인터뷰가 끝나서야 학생들이 일어났다. 그래도 부족한 내용은 자료를 보내주마고 약속하였다. 자리를 뜨면서 선배인 학생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간다. "저는 세종보를 뜯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성장 내려오기 전에 큰기러기떼가 금강 세종보 상류 자갈밭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단다. 가창오리 군무도 만나고 싶다해서 익산과 서천의 금강하구호를 찾아볼 것을 권했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찬겨울을 잠시 염려하며, 긴 시간동안 세세한 설명을 풀어내는 동안에도 큰기러기는, 금강은, 자연은 존재 자체로 열일을 하면서, 세종보 농성장을 꾸린 보람과 새로운 동조자를 우리 곁에 불러세웠다. 늦가을 농성장 모습이다.

2025년 세종보 점검_또 누수 확인_20250318

천막안에 두명이 누울 만한 작은 등산용 텐트를 넣어서 잠자리로 사용한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까지 새벽 내내 기온이 영하권을 기웃거렸다. 손난로 2개를 주물러서 하나는 침낭 발 아래에 묻어두고, 나머지는 잠결에 놓치기도 하지만, 손에서 쥐락펴락하면서 하룻밤 천막지킴이를 다하고 앉아 있었다. 침낭 속에 묻은 다리는 온기가 보온이 되지만, 상반신은 내피로 조끼에 겉옷을 두어벌 겹쳐 입었는데도 등이 시렵기를 겨우내 반복하였다. 그나마 한뼘 남짓한 공기매트를 맨밑에 깔고 요를 덮어서 인지 바닥냉기는 올라오지 않았다. 천막안이 녹색빛으로 환해진걸 보면 해가 올라온 것이다. 겨울담요로 깔린 바닥, 직사각형 모양의 침낭, 어느 활동가가 가져다놓은 여벌 옷, 무릎 담요, 공기를 빵빵하게 불어넣은 베개, 세종보 금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생명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들여다 보는 카메라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용량의 보조충전기가 이곳이 전기가 닿지않는 강가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겨울 천막농성장 풍경이다.

일찍 더운 초여름이다. 아침 금강은 소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차다. 육추를 마친 각종 새들은 어미와 새끼들이 일찌감치 재잘거린다. 천막 맞은 편 강가에는 아직도 잉어가 등지느러미를 물밖으로 들썩거린다. 중대백로 한 마리가 연신 고개를 멈추었다가 내뻗으며 물고기를 낚아챈다. 농성장 천막 옆 솟대와 함께 "사랑하는 나의 금강"이라고 적힌 만장이 아침바람에 나부낀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출근길 교대자가 내려오면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다. 벌써 7개월째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소한 새끼 까치들이 어미가 물어다주는 벌레를 서로 먹겠다고 한바탕 울음소리가 요란한 아침이다. 세종보 재가동 반대와 물관리 정책 정상화를 위해 세운 천막농성장이다. 농성장안도 여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정리의 시간을 가졌다. 금강이 홍수가 날때마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보낸 것만도 세 번을 겪고, 장만한 네번째 천막 안이 훤해졌다. 6월 장마가 시작되면 언제 강물이 천막지붕을 덮칠지 알 수가 없다. 물이 넘칠때마다, 태풍과 비바람이 칠때마다, 소형 텐트는 재난대피로 들었다 놓았다를 거듭하면

한두리교 아래 세종보 천막농성장 모습

서 끌고 다녔었다. 올해 장마를 대비한 농성장 대피용 슬림화 조치다.

6월 9일, 미니 다큐 <강은 길을 잃지 않는다>가 세종에 이어서, 대전 공동체 상영회가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열렸다. 오래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권부남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큐 출연자인데 영화관에서 보이질 않아서 전화를 했단다. 당번은 그렇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정해진 날을 지켜는 자리다. 미니 다큐는 세종보 천막농성장 365일의 기록이다. 2024년 4월 29일.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불법과 탈법으로 날치기 변경한 윤석열은, 4대강 파괴사업 부활의 시작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겠다고 했다. 수문을 닫는다는 작년 5월을 이틀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금강변에 천막을 쳤다. 보름달이 변하는 모습을 12번 보았고, 흰목물떼새의 산란과 부화, 그리고 이제 다 자란 아기새의 산란을 목격하였다. 명랑하게 이겨냈지만, 다들 수중농성을 불사하고 버텼다. 세종보 수문은 아직까지 활짝 열려 있다. 금강은 여전히 잘 흐르고 있다. 다큐는 지난 1년의 모든 과정과 활동을 지켜본 목격자,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기록한 영화이기도 하다. 세종보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촬영하고, 녹음하고, 인터뷰하고, 농성자들과 함께 덥고, 춥고도 모자라서, 기사뿐 만아니라 '김병기의 환경새뜸'으로 세종보 소식을 전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단순하게 농성장 천막 모습만을 담은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왜 속임수고 허구인지를, 정치가 강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환경부 앞에서, 세종시청 앞에서, 공주시청 앞에서, 때론 광화문광장에서, 혹은 영산강유역에서 활동가들은 세종보 상시개방과 완전 철거를, 비정상화된 국가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외쳤다. 생명문화제에서, 미사와 법회, 예배에서, 무수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설명회장에서, 길거리 행진에서 세종보 재가동반대와 철거를 외쳤다.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원불교에서, 물수제비뜨는 아이들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내란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사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농성장을 걷어도 될 만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정책 공약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 이행 바로미터는 "세종보 철거"에 달렸다. 금강유역의 3개보 처리방안은 이미 4년전인 2021년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해체등 공사 작업 방법과 시기, 필요한 재원 규모까지 상세한 로드맵이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졌지만, 용역결과 발표에서는 주요한 알맹이가 빠졌다. 4대강 재자연화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업무종사자, 동조자들로 구성된 정부 관료들, 내란범의 지시를 영혼없이 추종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절차를 송두리째 내던진 환경부장관,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사회와 손절하고, 겁박과 불법 체포, 기소와 강제 철거, 마구잡이 토건사업으로 4대강과 지류하천을 다시 망쳐놓았다. 결국 새정부가 비정상화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을 정상화하고 파괴되고 훼손된 환경생태 현장을 바로잡는 막중한 일을 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다. 국민들과 함께 생명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정책사업들로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4대강 재자연화 공약 대사명을 확실하게 집행해 마무리짓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주머니를 채웠던 소수와 결탁된 토건개발세력과 기득권세력은 4대강 보 유지, 댐·제방·보 건설과 강 준설이 홍수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이라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강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고, 윤석열 정부 환경부 장관은 무용지물된 공주보 개방과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모래톱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를 닫아 강물을 채우는 살인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고물보 세종보의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외치며, 금강 세종보 한두리교 다리 아래는 오늘도 천막에서 농성과 노숙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은 먼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로의 전환이다. 내란수괴와 내란정당, 토건세력의 꼭두각시 환경부 장관이 자동 면직되었다고 하나, 환경부가 불법, 무법, 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가물관리정책을 정상화하고, 4대강과 하천 정책을 정상화하며,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재자연화 실행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과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물길이 복원되고, 4대강이 재자연화로 자연성이 회복되고, 하구 복원으로 막힌 물길이 바다로 이어지고, 지류하천의 생태환경이 온전하게 보전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은 가짜뉴스와 지역주의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금강 세종보를 당초 확정된대로 즉시 철거공사에 착수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단순히 잘못된 토목공사를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발동하여 뒤집어진 국가물관리정책을 즉시 정상화하길 바란다. 금강은 흘러야 한다!!!

새로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025년 1차 이사회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지난 5월 22일, 고창섭 이사장(충북대학교 총장)이 주재하는 첫 이사회가 대청댐물문화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역 네트워크 대표들을 비롯해 K-water 대청댐지사장, 사업감사, 그리고 지자체 관련 부서장 등 당연직 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꽉 채워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당일, 초록이 짙어지는 5월의 청명한 날씨 속에 대청호반의 수려한 풍경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로 오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임정미 사무처장이 본부 사무처 활동가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두 명의 신입 활동가가 새롭게 합류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포부와 의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본부 사무처와 대청호 상·하류 지역의 회원 마을 및 단체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며, 상·하류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유역 거버넌스 기반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수행 중인 연구 과제인 <대청호 문의 수역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 적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 분석>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 지침에 따라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다시 마을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청호 보전'이라는 기조 아래 회원 마을과 단체의 활성화 및 협력 모델 구축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운동본부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있어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사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연구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결정 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대청호포럼, 본격 준비 시작!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2026년 창립 25주년을 한해 앞두고,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정책 제안을 위한 '대청호포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첫 회의를 열어 대청호포럼 추진단을 구성하고 3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거버넌스에 기반한 대청호 보전', '대청호 녹조저감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제를 정하고, 향후 포럼의 방향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포럼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대청호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올해 대청호 주요 현안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였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업 성과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개발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본부의 활동성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써 김종남 정책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사업 개선 및 기금 증액을 위한 근거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조직의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통과 기록을 강화하자는 공감 속에 정책연구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건강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금강하천감시단 제1차 운영회의

글_**강보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기획부장

25년 3월 31일(월)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발대식 이후 첫 운영회의를 진행하였다.. 25년 4월 총 104명으로 구성된 하천감시단원의 일제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조사의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지난 5월 14일(수)에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제1차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장소는 옥천군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이며, 참석자는 지역네트워크 대표들과 지역별 하천감시단의 대표, 지역별 지자체 환경과 팀장들과 실무 운영진들로 자리를 가득 메웠다. 운영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무주, 금산,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대전 동구 및 대덕구) 하천조사의 현황 공유와 오염원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현장조사 지역별 특이점은 없었으나, 매월 20일로 정해진 일제조사 일(±1)에 맞추어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하천정화활동시 지역별 담당 행정기관의 지원과 소통을 주문하였고, 주요 회의내용의 끝으로 하천감시단의 조사방식을 수기 기록방식에서 스마트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만, 당장 조사방식을 바꾸면 예상치 못한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적응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추후, 조사방식을 기존에 행해오던 수기 기록과 신규 스마트앱 활용 방식으로 병행하며 추진할 것으로 논의 하였다. 다음 제2차 운영회의는 오는 7월 8일로 정하였고, 그동안 조사 활동에 발생했던 이슈 사항의 점검과 사무처 실무자가 수행한 스마트앱 조사활용의 조사 예시 공유로 회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역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비 소식이 있어 아침부터 걱정이 앞섰던 5월 16일, 다행히도 빗방울이 우리를 기다려준 듯 견학 일정 내내 맑은 하늘이 함께했다. 이번 옥천 견학은 대청호 해설사들이 '지역의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공부하게 된 의미 있는 하루였다.

첫 번째 여정은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을 비롯해 전통문화체험관, 육영수 생가, 옥천향교 등 옥천 구읍 일대를 차덕환 선생님의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둘러보며 시작되었다. 고즈넉한 골목 사이사이 깃든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점심 식사는 옥천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추어탕과 추어튀김이었고, 그 정성스러운 한 끼는 해설사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이후에는 향수호수길로 이동해 산책과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손에 들고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작지만 확실한 실천'의 의미가 더해졌다. 주변을 청소하며 느낀 보람과 동료들과의 웃음은 견학의 또 다른 선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향한 카페에서는 차 한 잔과 디저트를 곁들인 간단한 대청호해설사 스터디를 진행했다. "차덕환 선생님의 차원이 다른 해설", "옥천의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 "비가 오기 전까지 완주한 행운"이라고 이 날의 활동에 소감을 남겼으며, 참가자 모두가 이 날의 견학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설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을 지키고 지역을 배우는 실천가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번 옥천 견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무주 네트워크

무주네트워크의 발걸음, 다시 맑아지는 하천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25년도 무주네트워크는 맑은 대청호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업에 내용과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운영회의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호응이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모내기 철과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각 마을의 대표들과 미리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했기에 모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무주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과 회원마을 가꾸기, 간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구량천맑은물만들기 사업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변 쓰레기 투기, 소각방지를 위한 수목식재와 친환경 제품 만들기, 주민환경교육, 친환경 제품지원, 하천 정화 활동, 농약 빈병 수거,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가시박 제거 활동 등이다.

4월 16일 상길산 마을에 회원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남대천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상길산 마을은 마을 옆을 흐르는 남대천가의 오래된 여러 구의 느티나무가 있어서 휴가철에 지역주민들과 행락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다 보니 천변에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방치된 쓰레기가 많다. 마을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여 남대천 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날 마을주민들과 약 2.5톤가량을 수거하였다.

그리고, 4월 17일 내동마을, 5월 8일 하굴암마을과 하장백마을 대상으로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을 앞 도랑이나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하천변 정화 활동과 수목식재, 하천정화활동 진행이 되었다.

올해도 무주네트워크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청호 맑은 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산 네트워크

깨끗한 금산천, 함께하는 금산 네트워크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지난 오월 30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는 주관단체인 사)정심회 중심으로 7단체 12개 회원마을과 환경감시단원 등이 연합하여 금산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금산천 일대에서 뜻깊은 '물사랑 자연사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금산읍을 관통하는 금산천은 산책하기 좋은 데크길과 아름드리 벚나무가 아름답게 조성되어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금산의 명산 진악산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은 금산천과 봉황천을 거쳐 금강 본류와 합류해 대청호로 유입된다.

금산의 중요한 생태 축이기도 한 금산천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향상에 좋은 곳이니 주민 들의 보전 의지도 더욱 각별하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기영 금산읍장, 노경수 금산경찰서장, 김해경 추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임정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모두를 격려해준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길윤현 회장은 '물사랑 자연사랑'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단체와 회원 마을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경보호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금산군민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길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금산천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사랑 자연사랑'의 마음과 수고가 빛난 행사였다.

옥천 네트워크

소유역거버넌스 “안내천협의회”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는 2025년 소유역거버넌스의 추진을 위해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한다.

대청호 직유입 하천의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으로 안내천을 중심으로 안내면 방곡리와 안내면 일대 농약병수거를 진행한다.

안내천마을을 직접 관리하여 소유역단위의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노력중이다.

“안내천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실천활동을 전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안남, 안내천 협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안내천협의회”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별 정화활동, 환경교육, 회의, 농약병수거 등이 있다.

안내면은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별 정화활동 및 농약병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마을로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 첫 정화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

“안내천협의회”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 네트워크

내가 그린 영동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민·관이 함께하는 정화활동이여서 높은 참여율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회원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높았다. 평지가 아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돋보였고, 수거된 많은 쓰레기 수거량과 마지막 분리배출 처리까지 완벽했기에 의미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었다.

지난 4월말에는 회원들과 함께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견학을 다녀왔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살랑살랑한 바람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었다. 국립생태원은 물론 조류생태전시관, 금강하구둑, 새만금 등을 경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는 유익한 견학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사업들도 알찬 계획으로 발전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은 네트워크

보은 거버넌스,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다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25년 4월 26일과 5월 24일 2회에 걸쳐 거버넌스 회원마을 2곳 정화활동과 친환경비누 만들기 및 우리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바로알기 등 환경인식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원들이 모여 대청호 주변 불법낚시터로 인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판장대교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연로하신 마을분들이수풀이 우거진곳에 버려진 휴지, 담배꽁초, 생활쓰레기등 0.7톤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시느라 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정화활동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25년 5월 17일 선진지 견학-무주양수발전소 견학

회원마을, 하천감시단, 환경연합회원들 40명이 무주 상부저수지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다녀왔다.

양수발전을 통한 자연을 훼손하지않고 영구순환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물의 소중함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으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통하여 청정지역에 사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 전시 및 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 생태온실, 아쿠아존을 관람하므로 생물의 다양함과 소중함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전 네트워크

대청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요~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2시까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 대청호직거래장터(주관단체: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수요생생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로 만나는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는 매월 1회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및 대청호 수질개선 기여하는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 사업은, 대청호상류지역 친환경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옥천, 영동, 금산, 대전지역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판매하고, 직접 지은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반찬, 현장에서 파전, 감자전도 인기가 좋다. 항상 인기가 많은 옥천 안남의 배바우 두부와 콩나물, 요즘은 토마토와 오이 등 제철 농산물로 가득차 있다. 곧 맛있는 과일들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처를 지나시거나, 대청호농산물을 만나보길 원하신다면 꼭 내시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2시. 남선공원체육관에 들려주세요! 아. 그리고 대청호보따리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관심가져주세요!

문의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042-471-0481

청주 네트워크

주민 손으로 가꾸는 깨끗한 마을! 청주네트워크 환경활동 활발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청주네트워크는 올해 운동본부 사무처 주관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물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회원단체, 회원마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주민환경교육, 마을정화활동, 도농교류활동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7일, 청주네트워크 소속 회원 마을인 노현리, 괴곡리, 구룡리, 묘암리에서 '대청결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00여 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하천과 생태계 정화를 위한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각종 영농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모아져 약 100여 개의 50L 종량제 봉투 분량을 수거하였고, 수거된 쓰레기는 청주시 환경위생과의 협조로 신속히 처리하였다.

구룡리 마을에서는 주민이 추천한 '환경리더'가 마을의 오염 우심지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천 및 마을길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리더들은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마을 차원의 일상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괴곡리 마을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쓰레기 실명제'를 시작했다.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 아래 주민 모두가 실명제를 실천하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비닐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의수역 회원마을 중 처음 시행되는 본 제도가 다른 마을에도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현리 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으로, 6월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저탄소 로컬푸드 요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과 협력하여, 환경 교육과 더불어 제철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요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YMCA와 묘암리 마을이 함께 준비한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은 우천으로 인해 잠시 연기되었으나, 조만간 재개되어 참여자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청주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환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병천천 소유역 시민과 함께 물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소유역 물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대청호 ~ 병천천 살리기 시민운동 확산, 시민·수계주민 대상 물사랑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병천천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2025 상반기 사업 진행 현황은 계획 대비 순조로운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 병천천 수생태 모니터링 및 하천 감시활동 2회, 2) 물사랑 시민양성 교육 및 캠페인 4회, 3) 물사랑 실천 환경교육 2회, 4) 병천천 소유역 거버넌스 운영 및 깃대종 홍보 1회, 5) 네트워크 참여 단위 운영회의 2회 진행되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2024년도 부족한 활동과 사업을 2025년에는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청호 뉴스 & 뉴스

청주시, 대청호 녹조 대비 수질관리 강화'

대전·충청권 최대 상수원인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의 남조류 증가에 대비해 청주시가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대청호 문의수역에는 조류(녹조)경보 '미발령' 상태이지만 지난 5년간 이상고온 등 여름철 평균온도 상승으로 조류경보 발령일이 앞당겨지는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청호 문의수역 조류경보 발령일은 2020년 8월 14일에서 2021년 8월 12일, 2022년 9월 15일, 2023년 8월 10일, 2024년 8월 1일 등이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선제적으로 문의 취수탑의 수심별 수질을 조사하는 동시에, 주변 회남, 추동수역 수질도 함께 조사해 대청호 주변 수역 조류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활동도 강화해 상수원 주변 오염원을 집중 단속한다. 정수장에서는 조류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등)과 조류독소를 모니터링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냄새 예방,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 질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 상승하고 일사량이 높으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 출처 :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금강환경청, 대청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9억원 지원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물질을 저감 하고자 비점오염저감시설 13개소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비로 국고 59억원을 지원하고, 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19개소에 대해 유지관리비 10억원 등 9개 지자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강우 시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5년간(2020~2025) 국고 441억원 및 수계기금 210억원을 투입해 대청호 상류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은 실제 수질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2022~2024)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습지의 유입수와 방류수 모니터링 결과, 비점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평균 80.1%에 달해 비점오염원 하천유입 저감이 입증됐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보이지 않는 수질오염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며, 예산 지원 확대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질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타임즈 한권수 기자

옥천군, 대청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치어 방류

옥천군이 대청호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일원에서 뱀장어 치어 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 치어는 충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부터 유전자검사와 전염병검사를 마친 전장 10cm, 중량 2g 이상의 우량한 극동산 종자다.

정구훈 내수면팀장은"대청호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며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양일보 황의택 기자

대전관광공사,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대전관광공사는 27일부터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끼며 해설사와 함께 스토리 여행을 떠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촬영 및 망 때리기 산책'을 즐긴다.

첫째 날은 '대청호 인문학 산책', '대청호 티타임', '나만의 사진촬영' 프로그램과 둘째 날에는 성심당 브런치를 시작으로 천연기념물센터,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한다.

1코스와 3코스의 공통프로그램으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해 대청호의 생성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미디어아트 영상을 관람한다.

태블릿을 활용한 AR 체험과 키오스크를 통한 대청호 주변 생태 정보를 탐색, 동식물을 색칠해 화면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도록 구현하는 라이브스케치 체험도 마련돼 있어 흥미로운 생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윤성국 사장은 "이번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수려한 대청호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대전의 대표 생태테마 관광지인 대청호에서 힐링과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 뉴시스 곽상훈 기자

대전시,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 확장 이전

대전시가 생태관광 거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동구 추동에 위치한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갖고, 생태관광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으로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도시의 자연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에 확장·이전된 탐방지원센터는 이 오백리길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정보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센터는 2015년 옛 보건소 건물에 마련되어 좁은 공간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총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83.62㎡,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신축해 보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새 센터에는 상담실, 독서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졌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획득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포용적 설계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한 관광 안내소를 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탐방지원센터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생태관광 허브로서 대청호오백리길을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하고, 걷기대회나 자연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브레이크 뉴스 김정환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금산군

금산군 추부면위생매립장, 환경개선 추진
안내표지판 교체, 도로변 꽃밭 조성 등 시행

금산군은 추부면 용지리 430에 소재한 위생매립장의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내표지판 교체, 계근대사무실 교체, 도로변 꽃밭 조성 등을 시행했다.

위생매립장은 17만9789㎡ 부지 내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t의 생활쓰레기와 10t의 재활용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위생매립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폐열회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옥천군, 대청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치어 방류 실시

옥천군이 지난 20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일원에서 뱀장어 치어 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관내 어업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를 방류어종으로 선택한 것이며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특성을 고려해 방류수역을 선정했다.

뱀장어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부터 유전자검사와 전염병검사를 마친 전장 10cm, 중량 2g 이상의 우량한 극동산 종자이며 이번 방류로 건강하게 성어로 자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어류를 지속 방류할 예정이며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제 55회 지구의날 기념행사!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날입니다. 매년 지역단체들이 모여 지구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의날은 거의 비가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시기가 곡우 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절기는 속일수가 없지요.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이라는데.....작년에도 곡우에 비가와서.... 믿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꼭 풍년이기를...

지구의날 행사 이야기를 하면서 옆길로 잠시 샜네요.^^

지난 4월 22일 화요일에는 대전시청 3층에서 2025년 대전 지구의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야,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주제로 문화행사와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생명의숲에서는 '나무는 탄소통조림' 라는 주제로 나무퍼즐놀이, 카프라놀이 등 퍼즐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시한 나무퍼즐이었는데요. 참여한 아이들이 무척좋아했답니다.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도 만들었구요. 지구모양 비누, 나무재질의 머그컵 만들기까지 행사를 진행한 활동가들도 무척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다.

- 글 기고 : 장기수 회원(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감사/출처 _ 네이버밴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자연의 인내심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때 마다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국대 천안교정 앞에 있는 천호지 카페거리에서 시민의 숲 나무심기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린데코리아가 후원한 시민의 숲 나무심기에 너른품봉사단과 호서대병설유치원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함께 손을 보탰습니다.

이 지구는 잠깐 미래세대에게 빌려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개발과 욕심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자연을 고민없이 후세에게 물려주면 면목이 없는 앞선세대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연이 다시 회복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숨 쉴수 있는 지금, 우린 자연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
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앞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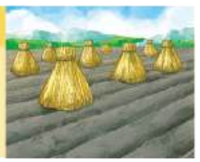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